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연구: 안양벤처밸리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이노카페운영을 중심으로

홍성만[†] · 한경일^{††}

The Study on Efficient Information Network in
Regional innovation Cluster

- The Case of Venture Valley in Anyang -

Sung-Man Hong[†] · Kyung-Il Han^{††}

ABSTRACT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information network which contributed Anyang Venture Valley's development. An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regional innovated companies was the essential factor of this growth. Anyang city with its Knowledge Industry Promotion Agency, KIPA, has first set up communication network, facility and other structures to create basis of communication. For that, they were able to operate various networking and promotion of communication which led to the enforcement of regional innovation in venture businesses. During its innovation, KIPA played a key role as a link between regional innovated companies, which enable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m. Government can verify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network base with mediation function for lively communication for promoting innovation capability through Anyang Venture Valley's case.

Key word : regional innovation cluster, Information network, Anyang Venture Valley

1. 서론

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략적 판단 못지않게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최근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 등의 육성을 비롯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은 이와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특정 산업과 기업들의 집적도를 높이고 혁신유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과 조치

[†] 안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

^{††} 안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 2008년 8월 10일, 심사완료 : 2008년 9월 15일

들을 취해왔다. 이러한 것은 산업에서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의 촉진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유사한 업종이나 유관 이업종 간 상호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시스템은 민간시장의 행위자들 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혁신체계, 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 등의 조성은 이러한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선진국의 몇 사례처럼 정부가 아닌 민간시장행위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으로도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클러스터 행위자 간 적정수준의 이해관계 균형점을 찾아나가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효과적이라 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4개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벤처기업 생태계를 형성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도모하였다.¹⁾ 지역혁신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s)에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혁신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간 기업의 현황이나 기술현황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는 기술개발이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상업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의 필요성이 크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양벤처밸리(Anyang Venture Valley)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의 하나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면적대비 기업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지역혁신클러스터지역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타 지역보다 면적대비 높은 기업의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는 안양벤처밸리에서 혁신의 직·간접적인 행위자들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한 정보소통의 네트워크는 안양벤처밸리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차원에서 추진된 안양벤처밸리에서

지역혁신주체들 간 이노카페(Innocafe)를 중심으로 한 정보이용 네트워크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안양벤처밸리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식산업진흥원의 이노카페운영 사례연구이다. 그 분석은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한 국내외의 문헌연구와 안양벤처밸리의 형성에 참여한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지역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2.1 지역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나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와 관련된 국외·내 연구는 다양하며, 지역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연구들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1][2][3][4][5][11]. 혁신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 테크노파크의 영향요인 연구,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네트워킹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에서의 혁신에 우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주요 논지인데, 여기에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집적 효과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혁신클러스터 접근이 결합되어 가고 있다. 산업클러스터²⁾가 지역혁신체계를 이루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클러스터는 지역혁신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룰 수 있으나, 혁신체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식적·비공식적 관계가 모두 중요시되어야 한다.[3] 클러스터(cluster)를 일종의 “축소된 형태의 혁신체계”로 보는 것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음을 말해주기도 한다[15].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에서 생산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도입하고 개선하고 확산하는

1) 중소기업청은 2001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것,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교통, 통신, 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2) 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입주기업과 지역 내 연구소, 대학 및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투입물(지식, 기술전문가, 디자인, 금융, 관리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숙련노동력, 자본과 장비)들을 조합해 조직적 지원차원에서 조성되어 기술 확산, 지역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uger, 2001).

과정에 관계되는 지역 내 다양한 요소들 간 동적 상호작용과 관계로 만들어진 일종의 제도적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체제나 지역혁신클러스터나 혁신주체들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12]. 클러스터 구축 정책의 핵심은 일정지역에 이미 집적되어 있는 특정 산업과 이와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를 높여, 단순한 집적 형태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10]. 여기에서 혁신주체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질적 양적 양태는 지역혁신역량이나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중에서 혁신주체들 간의 정보소통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적은 비용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보이용 및 정보소통과 관련한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혁신주체들 간의 어떠한 형태든지 우호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기술혁신이나 기술개발 나아가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기초적이면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정보소통 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

2.2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역할

지역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있어서 혁신주체들 간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벤처기업과 같은 위험감수적인 기술집약적 기업, 지역의 연구소 및 대학, 기업협회등과 같은 중간조직,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들 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는 혁신클러스터에서 혁신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클러스터에 있어서 학습(learning)과 혁신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는 강조되어지며 클러스터의 연계는 지역의 창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13], [14]. 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환은 인적, 물적 자원,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빈번한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보라 할 수 있다[13][15].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에서 각 혁신주체간의 정보교환은 큰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정보교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서 혁신 지향적(innovation oriented)인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일차적 이차적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클러스터 혁신주체들 간 정보교환의 의미는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9]. 시장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혁신주체들 간의 정보교류 및 정보교환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기술 상업화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보다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인 상업화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혁신주체들 간의 정보교류는 해당 산업과 시장 동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상업화의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혁신주체들 간 정보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협력 및 새로운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혁신기업 간 공감대를 넓힐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혁신클러스터에서 혁신주체들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정보이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3. 안양벤처밸리에서 정보이용 네트워크 분석

3.1 안양벤처밸리의 개요

3.1.1 안양벤처밸리 현황

안양벤처밸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창업에 의해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에는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 구간에 걸친 3km(90만 7천평)의 면적에 현재 약 1,10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면적당 전국에서 최고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혁신의 거점이다.³⁾ 이곳에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은 280개이며, 산업집적화법에 의한 공장등록 기업은 1,121개이며, 5인 이상 기업은 1,217개에 이르고 있다. 벤처기업 중에는 벤처투자기업이 86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118개, 연구개발 기업이 76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업체는 업종별로 섬유업체는 57개, 화학업체는 87개, 기계금속업체는 255개, 전기전자업체는 588개, 기타 134개 업체로서 전기전자업체가 52.4%를 차지하고 있다.

3) 당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혜택으로 재산세 5년 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자금 지원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산업연수생 배치 시 우대 등이 주어졌다.

안양벤처밸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로는 벤처기업 지원시설 6개가 있는데(<표 1> 참조), 지식산업센터, 동안벤처밸리, 만안벤처밸리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원시설에서는 주

로 벤처지원실, 회의실, 세미나실, 통신실, 휴게실, 교육실, 벤처입주실 등이 있으며 각 지원시설의 상황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안양벤처밸리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설 (자료: 안양시, 2008)

시설명	업체 수	주요 시설
지식산업센터(K-Center)	41	벤처지원실, 회의실, 교육실, 홍보관, K-라운지, 멀티미디어·계측·통신 장비실
동안벤처센터	10	관리실, 입주실, 회의실, 세미나실, 통신실, 휴게실, 문서고
만안벤처센터	6	입주실, 회의실, 휴게실, 수면실, 통신실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39	벤처입주실, 창업보육실, 공용장비실, 실험실, 교육실, 세미나실 등
평촌IT벤처센터	4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	입주실, 회의실

<표 2> 안양벤처밸리의 아파트형 공장 (자료 : 안양시, 2008)

시설명	업체수	시설명	업체수
유천팩토피아	182	디오밸리	145
동일테크노타운1차	12	두산벤처다임1	247
동일테크노타운1차	24	신원비전타워	73
동일테크노타운1차	61	성일디지털 타워	16
동일테크노타운1차	45	명지 e-스페이스	25
동일테크노타운1차	26	안양메가밸리	166
동영벤처스텔3차	16	한국프라자	7
동영벤처스텔5차	41	관양두산벤처다임	39

이외에 벤처기업지원시설로는 아파트형공장 16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별로 업체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두산벤처다임1에 247개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천팩토피아, 안양메가밸리, 디오밸리 순으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안양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안양시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벤처시설에 대한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민간 소유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하여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11월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식산업센터, 만안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관리하였고, 안양벤처넷과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안양벤처밸리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안양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속에서 안양시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주체들 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해 가

고 있다. 첨단산업관련기업 수는 2006년도 약 850개에서 2007년도 약 1,050개 2008년도에는 약1,100개 수준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집적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가능성과 함께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3.1.2 안양벤처밸리의 특징

안양벤처밸리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먼저,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인력수급의 수월성과 고급인력 충원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7]. 안양지역은 안산, 수원, 성남 면적의 1/3에 불과하지만 인구밀도는 서울, 부천에 이어 3위로서 인력수급이 수월하고, 특히 고급인력의 충원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높은 기업의 집적도를 들 수 있다. 안양벤처밸리의 기업체의 집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그 기업체 집적도는 3km²에 약 1,100개 업체가 입주에 있어서 성남(1km²에 200개)이나, 대전 대덕

단지에 비하여(1km에 100개) 몇 배씩 높은 편이다.

셋째, 인근에 지식 집약적인 유관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안양대, 성결대, 대림대, 안양과학대, LG 중앙연구소, 전파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학교와 연구소가 지구 및 인근에 분포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기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벤처집적지로서 지역적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대한투자증권, 2004.5)된 지역이다[5].

마지막으로 이외에 지리적으로 인접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유무선통신 장비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IT분야로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안양에만 유일하게 ITS, BIS 업체들이 새롭게 입주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2 안양벤처밸리의 정보 네트워크 실태: 이노카페

3.2.1 안양벤처밸리에서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자

안양벤처밸리에 있는 기술개발 및 혁신네트워크의 주요 구성 행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가하는 것은 이곳이 지역혁신클러스터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적 지표이기도 하다. 안양벤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보교류를 하는 주요 행위자들을 제시하면, 먼저, 지역대학을 들 수 있다. 안양벤처밸리 지역에는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 대림대학, 안양과학대학 등 4개 대학이 입지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기업과 연계된 자체세미나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대림대학은 포럼이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정보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안양벤처밸리발전협의회를 들 수가 있다. 안양벤처밸리발전협의회는 안양시 재정경제국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양벤처밸리 내에 있는 시설의 기관장과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벤처밸리 내 기관, 단체, 기업 간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정책의 홍보 및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안양상공회의소, 안양벤처기업협회, 기업은행 안양지점, 안양메가밸리 입주자협의회,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 23개 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정보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안양벤처기업협회도 안양벤처밸리 내에서 정보 교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벤처기업협회는 2001년 5월 중소기업청에서 안양벤처클럽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년 11월에 안양벤처기업협회로 명

칭을 변경한 안양시에 있는 벤처기업의 협회이다. 일종의 벤처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사 상호간의 기술 및 정보교류 등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는 중간단체라 할 수 있다.

넷째, 안양벤처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안양시(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를 들 수가 있다. 안양시는 안양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양벤처밸리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기업의 혁신활동을 유도하는 안양벤처밸리에서 혁신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이다.

다섯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들 수가 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 출연기관으로서 벤처시설 및 벤처넷을 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 등 주로 벤처지원시설을 관리한다. 그리고 입주업체 및 지역 내 관련업체에 대한 육성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주로 기술개발, 마케팅, 교육, 공용장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2.2 안양벤처밸리에서 정보 네트워크 활동과 양태

3.2.2.1 네트워크 연결원으로서의 정보 교류활동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혁신주체 간에 다양한 정보소통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에서의 정보소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의 <표 3>에서는 진흥원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지역소재 대학산학협력단 모임을 주관하여 기술개발 및 다양한 정보 소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학의 지식과 지역 벤처기업의 필요를 매개하여 상호교류 증진을 통해 지식과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벤처집적시설관리주체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벤처집적시설관리소장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지역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안양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대응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 3〉 안양벤처밸리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교류모임

(자료 : 안양지식산업진흥원, 2007.12.5)

교류모임명	인원수	교류 단위	주요 교류활동	활동 형태
안양벤처밸리발전협의회	23	전체	안양벤처밸리발전관련 협의	수시
안양벤처기업협회	123	전체/부문별	회원간 정보교류, 세미나 및 포럼	수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15	전체	기업지원관련 심의	수시
벤처집적시설관리 주체 네트워크	15	전체	안양지역 기업유치방안 도출	정기/수시
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	15	전체	산학연 협력방안 도출	정기/수시
관내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크	10	전체	기업지원사업 협력방안 및 신규지원내용 도출	1회/분기
임주업체 간담회	58	회원	임주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기업간 정보공유	정기/수시
산·학·관 네트워크 포럼	25	전체	이업종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시스템 도출	정기/수시
벤처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통합협의체	20	전체	집적시설간 정보공유	정기/수시
CEO 세미나 모임	200	전체	CEO간 정보공유	1회/2년

넷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벤처밸리 CEO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2년에 1회씩 개최하는데 여기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CEO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중소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 성공 사례의 소개,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이외의 교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회사운영, 기술, 제품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기업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협력네트워크의 조성과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안양벤처밸리가 처음 조성되는 시점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이들 기업의 CEO를 모으는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는 기업들의 CEO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한 정보소통의 효용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2.2 안양벤처넷의 운영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안양벤처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술혁신 지향적 정보소통의 가상공간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안양벤처넷(www.ayventure.net)은 2002년 2월 27일에 구축을 완료하였는데, 그 주요 서비스는 벤처기업 정보(검색, 통계, 명단), 벤처시설현황(보육센터, 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지원정책, 자료실, 상담실, 계

서판, 벤처뉴스, 공지사항, 지원정보 등으로 벤처기업현황에 대한 관리와 각종 지원시책 및 사업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mail로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벤처밸리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량의 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용량의 webhar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2.3 혁신소통의 정보 장(field)으로서 이노카페(innovation cafe)의 운영

이노카페(innovation cafe)는 안양지역 산·학·연·관 등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주체들에 개별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융합의 상승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자극하고자 운영한 혁신 정보소통의 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6].

이 이노카페에서는 다양한 정보 교류 및 교환, 정보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on-off line 동시에 이노카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둘째, 안양벤처넷, K-center, 안양시청, 안양시 소재 4개 대학, 벤처집적시설,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시판을 홍보하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혁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innovation cafe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치한 한 공간에 안양벤처밸리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및 혁신관계자는 누구든지 언제든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전문잡지 및 서적을 제공하고 있는 등 지역 혁신관계자간 상시적인 network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섯째, innovation cafe는 이러한 기능 외에 종합상단센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방문한 기업들의 지역산업 및 기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에 대한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회원사에 연락을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도 있다. 특히 여기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오피니언 리더를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소통의 장에서 혁신활동에서 중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이노카페운영사업보고서(2007.12.5)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4>와 같이, 이노카페에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방문한 것은 총 1,737건으로 6,491명이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목적의 51.2%가 지식교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노카페는 정보소통의 장으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 4> 이노카페 이용현황 (자료 : 안양지식산업진흥원, 2007.12.5)

구분	정보 검색	자료 열람	오피니언리더 연계신청	오피니언리더 만남	지식 교류	행사참석	장소대여 신청	각종상담	회의	기타	합계
건수	14	5	1	49	890	65	11	315	379	8	1,737
%	0.8	0.3	0.1	2.8	51.2	3.7	0.6	18.1	21.8	0.5	100.0%

이 기간에 기업지원기관, 입주업체, 벤처집적시설 관리주체, 소재부품전문협의회, 대학 연구기관, 안양지역 IT전문협의회, 산학관 네트워크 포럼, 벤처기업협회, 집적시설통합입주업체 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교류 및 간담회는 18회가 이루어졌고 392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4세대 무선이동통신 기술세미나, 안양지역 산학관 네트워크 포럼, 성공하는 영업전략 수립, 안양벤처밸리 클러스터 벤처마케팅 설명회, 안양벤처밸리 CEO 세미나 등 세미나 및 설명회도 16건에 893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노카페(innovation cafe)는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의 다양한 정보 교환의 창구로서 혁신정보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지역혁신역량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안양벤처밸리에서 지역혁신주체간의 지식교류활동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양시는 초기단계에서는 벤처시설, 장비, 통신망, 네트워크구축 등 정보소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킹과 정보 소

통의 촉진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의 지역 혁신역량강화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지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의 매개고리역할을 하였고, 그 매개고리의 중심에서 정보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첫째, 혁신활동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조성을 하였고, 둘째,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콘텐츠 확대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 교류를 촉진하고 엮어주는 매개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업종 간의 지식교류를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포럼처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상호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 지역혁신주체들 간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의 제고는 지역혁신주체들 간 상호협력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양벤처밸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는 정보공유의 영역을 창출하고 정보소통의 촉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며, 여기서 무무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의 중개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는 수도권중심의 편중된 발전체계를 보여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거시적인 구조적 변화를 최소화 하면

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이노카페 운영과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그 기능과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혁신클러스터에서의 혁신활동의 촉진과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정보이용 네트워크를 다루면서 정보이용 네트워크의 생성과 활성화과정을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정보생성과정, 정보축적과정, 정보유통과정, 정보활용과정 등의 분류와 같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창발적인 지식정보의 확산과정을 보다 분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점은 향후 보다 완성된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1] 강현수·정준호(2004), “세계의 지역혁신 사례분석 : 관련 이론, 성공요인 및 실패사례” 응용경제 제6권 제2호.
- [2] 권오혁(2004),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 [3] 구교준(2005), “지역혁신체제 이론의 어제와 오늘” 정부학연구 제11권 2호.
- [4] 남기범(2004), “클러스터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pp.407-432.
- [5] 대한투자증권(2004),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보고서. 2004.5.
- [6] 안양지식산업진흥원(2008), 2008 주요업무계획.
- [7] 안양시(2008), 안양벤처밸리.
- [8] 이성근(2004),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테크노파크의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9권 제2호.
- [9] 한동근·이상엽(2006), “산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 대구 안경태산업의 사례” 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 [10] 홍성만·최승범·임채홍(2007),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의 연계협력 분석: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MTV)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권 1호. pp.133-153.
- [11] 황우익·박중화(2004), “테크노파크의 성과영향요인: 집적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9권 제5호.
- [12] Cooke, P.(1998), “Introduction: Origins of the Concept”. In Braczyk, H.J., P. Cooke, M Heidenreich(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 UCL Press.
- [13] Dijk, M. P.(1994), “The Interrelations Between industrial District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Development: Concepts and Issue”. in UNCTAD(ed), *Technological Dynamism I industrial Districts*, New York: United Nations.
- [14] Luger, Michael I.(2001),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at the Millennium: Concept, History, and Metric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ongdo Techno-Park International Symposium, Incheon, Korea, March 30.
- [15] Nijkamp, P & W. Stohr.(1988), “Technology policy at the crossroads of economic policy and physical plan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Vol. 6.



홍 성 만

1992 고려대학교 행정학학사

1994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1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2008-현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전
임강사

2003-200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 정책분석평가,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비정부
조직, 갈등관리

E-Mail : smgreen@anyang.ac.kr



한 경 일

1982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문학학사)

1987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경영학석사)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1987-1992 쌍용컴퓨터 수석건설턴트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평가,
e-learning, e-government

E-Mail : kihan@anyang.ac.kr